

#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 확대 및 시사점

(2014. 8. )

타슈켄트 사무소

## 1 | 개 요

- 최근 중국과 우즈베키스탄 간의 교역 및 투자가 빠른 속도로 증가함으로써 중국이 우즈베키스탄의 최대 교역파트너로 부상
- 또한, 양국 정부는 국민 방문 등을 통해 전략적 파트너십 (Strategic Partnership) 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양국은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정치 및 지역안보 협력 이외에 경제협력 및 인적·문화적 교류 협력도 확대
- 특히, 최근의 양국간 경제협력은 기존의 에너지 부문 이외에 교통, 통신, 농업, 면방, 금융 및 관광 등 산업 전반으로 확대 되고 있는 추세임.

## 2 | 정부간 경제협력 외교

- 2013-2014년 양국은 정부 고위급 상호방문 등을 통해 양국간 정치경제적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음.
- 2013. 9월 중국 시진핑 주석이 우즈베키스탄을 국민 방문한데 이어, 11.28-29일에는 리커창 총리가 우즈베키스탄을 잇달아 방문
- 시진핑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기간중 양국은 31개 프로젝트, 총 15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

- 동 계약에는 석유, 가스 등 에너지 부문과 우라늄 개발 사업을 비롯, 교역, 투자 및 금융 부문이 포함
- 우즈베키스탄 카리모프 대통령도 시진핑 주석의 초청으로 금번 8.19~20 기간 중국을 국빈 방문함.
- 금번 정상회담 중 양국간 약 60억 달러 규모의 계약이 성사
- 양국 정상은 에너지, 교통, 교육, 관광, 안보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, 우즈베키스탄은 중국의 “실크로드 경제벨트 (the Silk Road Economic Belt)” 및 “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(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)” 설립 제안에 동의
- 금년 8. 12일에는 양국의 정부간 협력위원회(Intergovernmental Cooperation Committee)의 에너지부문 소위원회가 타슈켄트에서 개최되었음.
- 또한, 양국의 정부 관계자 및 기업들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2013. 4월 중국(북경, 항주, 소주 및 선양 4개 도시)에서, 6월에는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번갈아 개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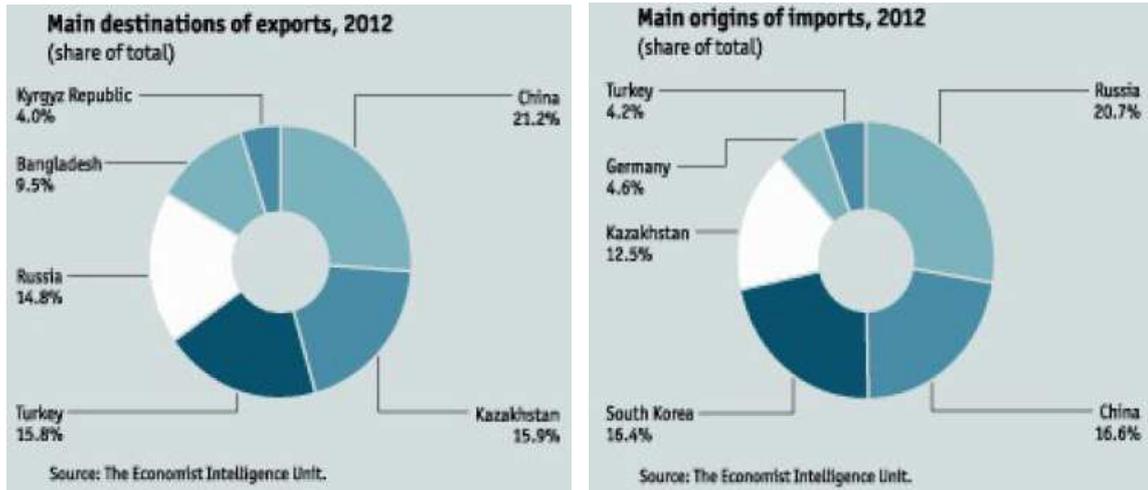
### 3 | 교역 및 중국기업 진출 현황

#### (1) 교역 현황

- 최근 6년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량은 6배 증가되어 2013년 약 52억 달러에 달하였으며, 2014년 1-6월 중 교역량은 약 21.6억 달러를 기록함.

\* 우리나라의 대 우즈베키스탄 교역량(2013년) : 20.2억 달러

- 2012년 기준 우즈베키스탄의 대 중국 수출비중은 21.2%로 1위, 수입 비중은 16.6%로 2위를 차지



## (2) 중국기업의 투자 및 진출 현황

- 2002년 이래 약 83개, 67.5억 달러의 프로젝트가 중국의 투자와 대출금으로 수행되었거나 진행되고 있으며, 이 중 52개, 57.5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는 FDI로 수행되고 있음.
- 중국은 외국인투자의 35.6%를 차지하여 우즈베키스탄 최대의 투자국가임.
- 한편,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482개의 중국 합작법인이 있으며, 70개 이상의 기업들이 대표사무소를 운영 중임.

## 4 | 주요 부문별 협력내용

- 특별산업단지(Special Industrial Zone) 설치
  - 우즈베키스탄은 2013년 중국과의 경제협력 기반 마련 및 중국 기업의 투자 유치 확대를 위해 Jizzakh(지작)주에 특별산업지역 (Special Industrial Zone)\*를 설치
  - \* 제1단지는 지작주에 설치하고, 인근 시르다리야주에 제2단지 건설

-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3년 지작(Jizzakh) 산업단지의 교통, 산업 및 인프라 개발을 위해 5천만 달러 규모의 다양한 개발 프로그램을 개시
  - 소요자금의 대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조달하고 부족분은 외국 기업이나 국제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할 계획
- 동 산업단지는 30년간 운영되며, 30만 달러 이상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각종 세금(법인세, 재산세, 관세 등) 우대 혜택을 부여 (다만, 세금우대 기간은 투자규모에 따라 상이)

#### □ 에너지 부문

- 우즈베키스탄은 2012년부터 중국에 대한 가스 수출을 시작하였으며, 현재 제3의 가스 운송 파이프라인("Uzbekistan-China")이 건설 중에 있음.
- 2013. 9월 시진핑 주석의 우즈베키스탄 방문기간중 양국은 연간 30bcm 규모의 가스운송이 가능한 제4의 파이프라인 건설을 포함한 파이프라인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
- 또한, 현재 중국 국영석유공사인 CNPC는 무보락(Muborak) 가스화학단지내의 천연가스 처리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으며, UNG 및 Lukoil과 함께 아랄해의 탐사작업도 수행 중임.
- 중국 China Coal Technology & Engineering Group(CCTEG)와 우즈베키스탄 국영기업 Uzbekcoal은 우즈베키스탄 남부의 수르한다리아 지역에 위치한 석탄채굴단지 현대화사업 계약(계약금액 U\$88.5백만)을 체결
  - 동 사업의 총 소요자금 U\$101.3백만 중 U\$89.5백만은 중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조달

## □ 교통 및 운송 부문

- 중국의 China Railway Tunnel Group Co., Ltd.는 현재 건설중인 우즈베키스탄 'Angren-Pop 철도\*'의 2개 터널공사를 수주

- 총 계약금액 약 5억 달러이며, 이중 4.4억 달러는 중국으로부터 조달

\* 타지키스탄(Tajikistan)을 우회하여 타슈켄트와 동부 페르가나 지역을 연결하는 129km 길이의 철도임. 총 건설비용은 약 24억 달러 규모이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6년까지 건설을 완료할 계획

현행 철도구간이 우즈베키스탄과 분쟁이 잦은 타지키스탄 국경을 통과하고 있어 화물운송에 차질을 빚어 왔으나, 동 철도는 유럽 및 중앙아시아 국가와 중국을 연결하는 주요 철도운송로가 될 것임.

- 중국 CNTIC-CNRDLRC 컨소시엄은 일본 도시바와 공동 개발한 화물차량 11량을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동 차량은 새로이 건설되는 Angren-Pop 구간 화물 운송에 투입될 예정임.

- 또한, 우즈베키스탄 철도청과 중국의 건설장비 제조업체인 XCMG사는 우즈베키스탄에 굴삭기 생산 합작회사를 설립할 계획임.

## □ 농업 부문

- 농업분야는 향후 양국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이며, 중국은 우즈베키스탄 면화의 주요 수입국임.

- 현재 많은 우즈베키스탄의 조면공장들이 중국산 포장 및 가공장비를 구비하고 사용하고 있음.

- China National Machinery Industry Corp.는 우즈베키스탄에 300대의 캐터필러 트랙터를 제공할 계획임.

- 중국 CITIC International은 우즈베키스탄 Dehkanabad 칼리 비료 생산공장 증설 프로젝트에 참여

- 소요자금(U\$126백만)은 우즈베키스탄의 Uzkimyosanoat(U\$22백만)와 재건펀드(UFRD, U\$62백만) 및 중국 수출입은행(U\$44백만)으로부터 조달

## □ 기타 산업 부문

- 중국 CAMC Engineering Co., Ltd.와 우즈베키스탄 Navoiazot는 연 PVC 100천톤, 가성소다 75천톤 및 메탄올 300천톤을 생산하는 새로운 화학단지 건설계약 체결('14. 8. 19자, U\$4.4억 달러)
- 중국 Harbin Electric International Co. Ltd.는 Angren TPP의 150MW급 화력발전소 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, 중국 수출입은행이 동 소요자금을 지원
- 중국 통신업체인 ZTE사는 우즈베키스탄 시르다리야 특별경제지역(Special Industrial Zone)내에 중앙아시아 최초로 스마트폰 생산공장을 설립하였으며, UZTE라는 브랜드로 3개 종류의 스마트폰을 출시
- 중국 버스 생산업체인 Golden Dragon사는 우즈베키스탄에 유럽 표준의 버스조립공장을 설립할 계획이며, 동 공장에서 생산한 버스들을 타 CIS국가로 수출할 계획

## □ 금융 부문

- 2014. 1월 기준으로 중국 금융기관들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총 대출규모는 약 45억 달러를 초과
- 중국 국영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(China EXIM Bank)과 개발은행(China Development Bank)은 중국 기업들의 우즈베키스탄 각종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
- 2013. 9월 중국 CDB와 우즈베키스탄 재건펀드(UFRD)는 116억 달러 규모의 투자프로젝트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계약을 체결

□ 아직까지는 러시아의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정치경제적 영향력이 강한 편이나,

최근 러시아의 경제위기와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접근 등을 감안할 때 우즈베키스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.

○ 중국은 지역안보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, 우즈베키스탄은 자국 경제개발과 대 러시아 의존도를 낮출 필요

○ 특히, 최근의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은 기존의 에너지 분야 이외에 농업, 교통, 석유화학, 자동차 등 전 산업분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.

□ 현재 우즈베키스탄 시장은 서방 및 일본 기업들\*의 진출이 아직 미미한 가운데 중국, 러시아 및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임.

\* 현재 우즈베키스탄에는 10개 이내의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으며, 일본인 거주자도 약 100명 내외로 알려지고 있음. 또한 양국간 무역규모도 약 2억 달러 규모로 크지 않음.

□ 그러나, 향후 중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제협력, 교역 및 투자가 더욱 확대되고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 질 것으로 예상되므로

우리 기업들이 시장선점 효과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중국 기업들의 진출 및 투자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.

(자료 : EIU, Uzbekistan Today, China Daily, UzDaily, Asiaone News, Global Risk Insights 등)